‘우리차 마시기 시범사업’ 보성군, 1억 3천만 원 지원

시범학교 신청 줄이어…전국 학교로 확대

보성군이 7월부터 11월까지 전남교육청과 손을 잡고 도내 84개 희망 학교 중 50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 1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유기농 보성녹차와 가루녹차(938㎏)를 공급하고, 우리차 마시기 시범사업 확대에 나선다.

보성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보성차’를 청소년의 식생활습관 개선과 차예절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건강과 인성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성군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품과 역량 함양을 위해, 전남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방과 후 차예절 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청소년 우리차마시기’ 시범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차 마시기 시범사업’은 학생들이 차예절을 익히고, 차의 효능과 차문화가의 이점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상시 차를 음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최근 방과 후 차예절 교육이 공동체 생활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과 건강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부각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차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안정 효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내 중금속 배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식중독 예방,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강화 등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 효능이 뛰어나 차와 음식, 그리고 차예절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업유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차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읍사무소 내 모유수유실 설치

모유수유 증진 ·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나서

광양시보건소는 최근 광양읍사무소에 아이와 엄마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모유수유실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은 여성의 모유수유 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수유실 내에 수유쿠션, 소파, 아기침대, 유아탁자, 파티션,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각종 편의용품을 함께 비치했다.

시는 새롭게 설치된 모유수유실이 엄마와 아기를 위한 편안한 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지역내 12개소 모유수유실을 점차 확대하고 부모와 아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부모와 아기가 행복한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통합보건지원과장은 “새로 마련한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이 홍보되어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며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유소년 드론 축구단’ 발대식 개최

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순천시 유소년 드론 축구단 발대식’이 참여 학생과 학부모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생소한 드론 축구를 동영상을 통해 알아 보는 시간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드론 시연을 선보여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순천 유소년 드론축구단’ 체험교실은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이 되며, 이 중 뛰어난 7~10명을 뽑아 대회에도 참가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연계단체인 (사)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 해룡면 위원회가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유소년 드론축구단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도 돕는 봉사활동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원들을 연계하여 관내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C형간염 없는 청정구례 선포식’ 개최

구례군이 대한간학회와 지난 20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C형간염 없는 청정구례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대한간학회 이관식 회장, 양진모 이사장을 비롯한 14명의 저명한 의과대 교수 및 간 전문의가 참석하였으며,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완치자 대표 인사,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구례군민을 위한 간 건강 강좌 순으로 진행됐다.

C형간염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70~8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나, A·B형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고 무증상으로 진행되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급속히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구례군은 지난해 5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여 2명의 양성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10월 20일(간의 날)에 대한간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C형간염 항체검사부터 치료제까지 군민들에게 무료로 지원하여 C형간염 없는 청정구례를 선포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우리 구례군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C형간염이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순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23건의 안건 심의 · 의결

순천시의회는 최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전남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전남도에만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동의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묵)는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을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곡성군,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시동

소상공인 심화교육 수료 후 컨설팅 · 멘토링 지원

곡성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화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한다.

곡성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성공창업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소상공인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지역상권 침체로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곡성군 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번 심화교육은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으로 노무기초에서 신용관리요령·세무실무, 온라인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4일간 매일 4시간씩 진행된다.

또한,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3개월 간 현장에 전담 매니저를 투입해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매출증대를 위한 고객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접목하여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 동종업종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메뉴개발, 업장환경 개선 등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까지 통합 지원하여 기존 컨설팅 중심의 프로그램을 보완해 참여자와 수시로 소통하여 사업의 성과달성을 높일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침체되어 있는 곡성군내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예비창업자 성공창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여수시, 알레르기 예방 위한 숲 체험 ‘호응’

여수시가 지역 어린이 80여 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과 22일 미평동 봉화산 삼림욕장에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보건소 전문 인력은 알레르기와 아토피질환의 올바른 보습법, 개인별 증상에 따른 예방관리법 등을 설명했다.

숲 전문가는 ‘생활 속 알레르기 예방’을 주제로 현장체험 강의를 했다. 공기정화식물을 심고 삼림욕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혜정 보건소장은 “알레르기 질환은 환경과 생활습관 등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알레르기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